

강용주의 '인권 광장'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식민통치로 서민들의 삶이 절망스러웠던 일제 강점하 조선에 빗댄 말이라고 합니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에 관한 통계도 '헬조선'의 일단을 말해줍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무려 7만 1916명이나 되니까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이라크 전쟁 사망자의 2배가 넘고, 10년 넘게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의 5배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쟁보다도 무서운 게 자살인 셈입니다. 서민들에게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현실이고 '지옥'인 게지요.

희망을 꿈꿔야 할 나이인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도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자조할 만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더니 이제는 10만 명당 100명을 넘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 평가에서 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연계'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자살률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IMF 위기 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2001년 IT 버블과 신용카드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더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자살'(economic)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는 최근 10여 년 새 급증하여 자살 증가율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지난 108년 동안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살률이 내려가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자살률이 2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업률이나 살인율도 마찬가지구요.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하는 '폭력 치사 발생률'이 공화당이 집권할 때 '전염병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민주당의가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인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지표 같습니다.

해방 70년을 자축하는 소리가 넘치지만, 경제 발전을 일구어 온 서민들의 삶은 힘겨워 '헬조선'이라는 젊은이들의 자조가 저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이 현실을 바꿔야 '자살 공화국'에 마침표를 찍고 생명을 낳아 기르고 지키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이 될 수 있겠지요.

社說

광주·전남 부정적인 이미지 벗겨 내려면

외지인들이 광주·전남을 바라보았을 때 '딱딱하고 지역감정이 심하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적됐던 기존의 부정적 관념이 여전히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전남연구원이 개최한 지역 상생 정책 워크숍에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여전히 예전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다. 타지인이다. 지난 20년간 자살률이 3배나 높아졌고,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자살 공화국'이 되었는데 말이지요.

반면 광주의 좋은 이미지에 대해선 '5·18 민주화외 도시'(20.7%) '음식이 맛있다'(14.0%) '인심이 좋다'(10.4%)

'친절하다'(7.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전남은 수려한 자연환경(24.2%), 음식(22.2%), 관광지(8.3%) 등이 꼽혔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높은 것은 외부의 요인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지역의 나쁜 이미지는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정, 역사적 사건의 왜곡,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씻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본심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거울 삼아 광주의 '문화', 전남의 '청정' 등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과 함께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밝은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 의의와 과제

광주를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이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디자인과 지역 산업을 접목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한 데 이어 19일 국제디자인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디자인 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선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어제 개막한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아닌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한 첫 번째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예술에 치중했던 이전 대회와 달리 디자인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살려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주 지역 브랜드 업그레이드 전'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 등 네 개의 테마로 나뉘어 100여 개 국에서 3000여 점이 출품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국제디자인 총회'는 디자인 도시에 걸맞은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자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문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30여 개국 디자인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디자인 축제다. 디자인 이론의 선구자 빌터 마굴란 시카고 일리노이대 명예교수, 체험 마케팅의 대가 번 슈미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참석해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모름지기 21세기는 디자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세계 각국이 독보적인 디자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틀씩 이벤트를 계기로 광주가 디자인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최 측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종교칼럼



일담 강진 백련사 주지

가을 단상

일지 모르지만 후대를 위해서 사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 출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시골에 계시는 늙으신 부모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찾아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녁 밥을 차려주고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묻더랍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니 어때냐고. 그 스님은 별 생각 없이 힘들었던 일을 주섬주섬 푸념삼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늙으신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 그렇지?"하는 말을 듣자 지금까지 들은 부처님 말씀 그 어떤 것 보다도 그 말씀이 더 와 닿았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지가 오랜 세월 터득한 경험이 부처님 말씀처럼 지혜로 다가온 것인입니다.

흔히들 불교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때마다 저는 "글쎄요,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교가 다루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라는 반문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아직 눈을 가리고 있는 먼지들이 많아서 귀를 막고 있는 소음이 너무 커서 잘 보고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을철이어서 그런지 요즘 부처 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을 피해 동백숲을 거닐다가 '네 마음이 고요하면 시장거리에 있어도 산중 같고 네 마음이 들뜨면 산중에 있어도 시장 거리 같다'며 주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글이 생각납니다.

추사는 초의가 일지암에 틀어박혀 좀처럼 한양 걸음을 하지 않는 것이 몹시도 서운했나 봅니다.

초의보고 너는 시장거리가 산속보다

못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산중에서 네 마음이 들뜨면 정자 어디로 쫓아가려고 하느냐며 시장거리에 있더라도 산중에서 보듯 하면 거기가 거기 아니면서 심술을 부립니다.

초의에게 추사는 참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 제 도반(함께 도를 닦는 벗)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서울의 청계천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잠시 다리를 쉬다가 땀을 깨달은 듯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오면 친구가 많지 않더라 별 시댁은 일로 투덜거리더라 그 고민의 답을 내렸나 봅니다.

"결국 인생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

난 툴툴거리면서 "그래 난 볼 흐르는 대로 꽃 피는대로 살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인지 그렇게 헤어진 도반이 그리웁습니다.

기고



정유하 함평성심요양원 사회복지팀장

어르신에 듣고 싶은 말 "살아있으니 좋네"

면 그편이 훨씬 좋다. 하늘은 오늘날 바쁘고 지쳐있는 자식들의 집 대신 자식들보다 어르신들의 뒷바라지 솜씨가 훨씬 노련한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주는 노인요양원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인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며? 고상하게 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고민하지는 않더라도 요양원을 택한 어르신들의 인간으로서의 욕구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문제 연구자 시몬스는 장수의 욕구,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 집단 내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구,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어하는 욕구로 노인의 욕구를 정리했다. 토스과 와스켈은 노인들도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해소되지 못했을 때 노인들은 낮은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복지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행복한 삶'이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쓸것인

다~' 대신에 '살아 있으니 좋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서의 삶이 요양원 밖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길까?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잘 계획되고 실행되는 여가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있다. 요양원은 질병이나 기능장애·심신쇠약으로 자립하기가 힘들고 또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설을 말한다. 영이는 훨씬 쉽게 요양원을 설명한다. 너싱 홈(nursing home), 즉 간호를 받으며 사는 '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양원은 따뜻한 간호에 더하여 여가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장소라야 한다.

전문직이고 따뜻한 간호와 더불어 노인요구해소 프로그램을 통한 즐거운 여가생활이 더해진다면 요양원에서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 음악과 함께하는 체조하기,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하기, 각종 놀이, 집단상담, 그림 그리기 등은 노인들의 욕구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서 기적같은 일들도 일어난다. 지적능력을

거의 상실한 입소자가 '노래 부르며 물건 돌리기'를 했더니 영검결에 불꽃을 옮기신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께서 즐겁게 놀이에 참가하시며 웃으신다. 낱말 돌리기 시간에 육 대신 '칙칙폭폭'을 열 사람에게 전하시는 할아버지의 행동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발음이 어눌한 어르신들의 발음도 교정되고 작은 실수에 웃음이 꽃피며 작은 기적들로 모두가 행복해진다.

가끔은 지혜가 뚝뚝 담긴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에는 당연히 많은 수고가 따른다. 반음이 신통찮을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꽃이 진행되며 있는 요양원에서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웃과 소통하고, 집단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존재인 것이다. 어차피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자신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어르신이라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요양원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양질의 삶은 어려서도,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말(馬) 산업 경마밖에 없나...다양화 필요하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말(馬)'하면 대부분 경마를 떠올리기 쉽다. 말산업도 마찬가지다. 생소한 산업인 탓에 말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85%를 웃돈다. 하지만 말 산업이 국민경제의 직·간접 산출 효과를 포함하면 3조 2094억원으로,

농업생산액 45조원의 7%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이 경마와 승마, 재활치료, 말고기 등 6차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 1차 산업에는 사료, 조지관리 등 생산·사육업, 품종개량 등이 해당된다. 2차 산업은 말에 필요한 말 산업이 국민경제의 직·간접 산출 효과를 포함하면 3조 2094억원으로,

경마와 승마 등 레저산업, 운송업, 기수 양성 등이다. 이런 말 산업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려면 말 생산·조련·유통 등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 산업 국민 인지도가 2011년 7.9%에서 지난해 28.4%로 높아지면서, 전망도 밝다. 경마부문에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생산과 승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승마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

게 운영, 학교에서도 체육과목에서 승마를 채택하고 확대해야 한다. 여성이 승마의 주 고객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승마용 말 생산과 전문인력 확보도 개선할 부분이다. 경마와 관련된 물품에만 한정된 연관산업에서도 탈피해 부산물 이용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육성·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최성오·농림안성교육원 교수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기억의 불멸' (Immortality of Memory). The ad describes the book as a collection of essays on memory and aging, featuring a foreword by a prominent figure. It is published by Redplane and priced at 10,000 KRW.

光州日報 (Gwangju Ilbo) advertisement.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It also mentions the newspaper's founding date and circulation figures.